

기고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백신의 수요를 생각하며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0년 11~12월에 걸쳐 15세 이상 성인 남녀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인의 행복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의향 문항에 대해 국민의 60.1%가 '있다', 24.6%가 '없다', 15.2%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접종이 없는 국민 중 41.1%는 접종의 부작용을 우려하였고 32.2%는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하였다. 접종의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국민의 55.4%도 접종 후 부작용, 30.8%는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하였다. 백신 접종의향은 지역별로도 차

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접종하겠다고 응답한 지역이 인천(76.9%), 강원(72.2%), 울산(69.6%)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경북(45.5%), 전북(45.2%), 대전(43.8%), 대구(36.9%)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향이 낮은 지역에서 정부의 방역 활동 신뢰도나 만족도가 이외의 지역과 별 차이가 없음을 볼 때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보다는 백신의 부작용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백신 개발에 적어도 10년 이상이 소요되었던 과거를 생각할 때 전문가들조차 1년 만에 개발된 백신에 대한 초기 의구심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인

류의 대응은 놀랍도록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백신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급 측면이라는 절반의 문제이다. 나머지 절반 받은 백신을 접종받고자 하는 국민의 수요이다. 공급과 수요가 잘 맞아야 백신 접종도 신속하게 이뤄지고 목표하는 시점에 집단면역에도 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백신의 부작용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들을 알기 쉽고 신뢰할 있게 전달할 것인가이다. 이 지점에서 보건 의사소통(health communication)이 제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사실과 함의성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펼치고 서로 확대해하면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 등이 더욱 많아졌다.

온라인의 소통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더욱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편견 없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의사소통이 더욱 활발해진 것이다. 백신은 과거부터 음모론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백신이 아이들의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소위 백신반대 운동가들의 오래된 구호이다. 오바마 집권 당시인 2014년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였던 랜드 폴은 백신은 위험하다고 공공연히 주장하였으며 당시 도널드 트럼프가 '건강한 아이가 백신을 맞고 자폐증에 걸린다, 이런 사례가 너무도

많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려 아동 백신 접종을 저해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등의 단체가 음모론 등에 기반한 예방접종 거부가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급진적인 기독교 단체인 인터콥 선교회의 지도자는 코로나19는 계획된 음모이며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주장을 펼치다가 정작 자신들이 집단감염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였다. 백신을 맞으면 DNA를 변형시킨다든지, 백신 임상실험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는데 제약회사의 수익을 위해 은폐하고 있다든지 등의 내용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에 얼마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및 방송심의를 통한 엄중 조치와 더불어 신속한 팩트체크와 사실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카카오톡과 밴드 등 사적인 채널을 통한 소문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단속 및 일방적 사실 제공 위주의 대책은 아쉬운 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책들은 접종의

향미 없는 사람들을 1차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럼의 디렉터인 앤서니 구치(Anthony Gooch)는 보건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볼 때 접종의향이 없는 사람들보다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올바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과학적 설득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이들은 전문가들도 초기에 의심했던 신속한 백신 개발에 대한 안전성 등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지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보건의 의사소통을 통해 충분히 의향을 높일 수 있다. 또 하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보건의 의사소통을 위한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의 공감 능력이다. 보건 의사소통은 일방적인 홍보나 교육이 아니다. 공감을 바탕으로 한 신뢰 구축의 과정이다. 현재 시사각각 전해지는 해외의 백신접종 관련 소식과 정부의 백신 관련 정책 등은 일반 국민이 접종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정보 과잉 상황인 것을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은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and subscription rates.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모두가 앞장서야

최근 유명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 등 '학폭 미투'가 사회적 핫이슈이다. 학창시절 겪은 폭력 피해가 성인 이후까지 그 고통이 이어지는 등 학교폭력을 제재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해 평생 정신적 상처로 남는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학교폭력은 오프라인에서 온 라인 SNS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

이버 공간으로 이동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저연령화, 집단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3월~4월까지 학교폭력 신고 전화인 117을 통해 하루 평균 248건의 상담 및 사건이 접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월~2월까지 일 평균 신고 건수 100건인 것에 비하여 148% 증가한 수치로 매년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학교폭력의 급증과 함께 신학

기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2014년부터 각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배치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사건 발생 시에는 학교폭력대책 심의위 참석 등 교육청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한편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고와 도움을 요

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직접적 신고 외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 및 스마트폰 어플 '안전 Dream'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 서로가 상처 주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폭력을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입니다. 학생 스스로의 노력과 어른들의 관심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갑시다. 신용섭/순천경찰서경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